



혁신 신약 국제적 도전, 지식재산이 함께합니다

- 지식재산처, 혁신 신약 연구개발 기업 리가캠바이오 방문 -

【관련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32.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 7.(목) 14시 혁신 신약 전문기업 리가캠바이오(대전광역시 유성구)를 방문하여, 신약 분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내 기업들이 혁신 신약 후보물질을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 수출하며 세계 무대로 발을 넓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이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리가캠바이오는 신약 개발역량과 면역항암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성 신약과 항체-약물 접합체(ADC)*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얀센(미국), 복성제약(중국), 오노약품공업(일본) 등 글로벌 제약사에 다수의 신약 후보물질을 기술 수출하며,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의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 Antibody-Drug Conjugates: 항체의 특이적 선택성과 화학요법의 높은 치료효과를 결합한 치료제

이번 간담회에서 지식재산처와 리가캠바이오는 의약품 및 ADC의 특허요건 판단 기준, 화학 약물과 항체를 연결하는 링커 설계에 관한 플랫폼 기술 발명의 특허권 확보 전략, 국내외 심사경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이호조 화학생명심사국장은 “혁신 신약은 막대한 투자와 긴 연구 기간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분야인 만큼, 강한 특허권 확보가 기업 경쟁력의 토대”라면서 “국제적 시장에 도전하는 우리 혁신 신약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발판으로 견고한 경쟁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진은 행사 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화학생명심사국 약품화학심사과 유기화학심사과	책임자	과 장	김 용 (042-481-8642)
		담당자	사무관	김강필 (042-481-5510)
		책임자	과 장	좌승관 (042-481-5534)
		담당자	사무관	문영준 (042-481-5487)

